

# 靑少年의 재주와 끼 마음껏 발휘

## 범죄예방위원 포천시지구협의회, 한북 청소년예술제 성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천시지구협의회(회장 송순석)는 11월23일 포천만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의정부지방법경찰청 박상욱 검사장을 비롯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과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북청소년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예술제는 박상욱 검사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준 교육감, 박운국 포천시장, 각 지역회장, 지구회장단 등의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상메시지와 개회선언에 이어 표창상 및 장학금 전달, 대회사, 격려사로 1부를 마치고 2부는 MBC개그팀 고명환, 김주연 사회로 청소년들의 재주와 끼 마음껏 발휘하기도 했다.

한북청소년예술제에는 의정부 호원고, 양주 백석고, 가평고, 포천동남고, 연천고, 구리고, 포천일고, 동두천 보영여고, 포천 일동중고, 철원고 학생들이 참가해 다양한 끼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앞서 실시한 2007년도 중·고등학교 학생 글짓기 공모작품 심사결과와 시상식도 실시했으며 모범청소년에게 포천시장, 포천교육장, 포천경찰서장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사람나눔 결연학생과 2007년도 포천지구회 장학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순석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천시지구협의회장은 "청소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예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지원해주신 의정부지방법경찰청 박상욱 검사장님, 박운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법무부 범죄예방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상자 및 장학금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창장 ▶황성훈(포천고, 시장상) ▶문정희(포천고, 시장상) ▶이대우(동남고, 시장상) ▶문성훈(이동중, 시장상) ▶이유리(포천여중, 교육장상) ▶이동훈(포천중, 교육장상) ▶김예진(이동중, 교육장상) ▶이슬기(갈월중, 교육장상) ▶김요한(포천중, 교육장상) ▶김성우(포천고, 경찰서장) ▶오은(영북고, 경찰서장) ▶김준영(포천중, 경찰서장) ▶김희섭(관인고, 경찰서장) ▶허성범(관인고, 경찰서장) ▶글짓기 ▶대상 유다인(호평고, 운문) ▶최우수상 김아름(금오중, 운문) ▶최우수상 김아름(금오중, 운문) ▶최우수상 김아름(금오중, 운문) ▶최우수상 김아름(금오중, 운문) ▶박찬희(포천일고, 산문) ▶사랑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천시지구협의회는 11월23일 포천만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한북청소년예술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송순석 회장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나눔 결연학생 장학금 ▶김정연(동남고1년) ▶남시라(금오여중3년) ▶문진실(동남고 2년) ▶박루시아(내촌중 2년) ▶배이슬(관인고 3년) ▶이미현(포천여중 3년) ▶이용기(관인중 2년) ▶차승현(동남고 2년) ▶2007년 포천지구 장학생 ▶조나라(포천고 3년) ▶이신호(포천중 3년) ▶정선미(포천고 3년) ▶이보라(포천고 3년) ▶정민찬(동남

중 3년) ▶윤도영(동남중 2년) ▶김갑철(갈월중 3년) ▶유미연(영북중 3년) ▶김용문(관인고 2년) ▶김상민(일동고 3년) ▶박지성(일동고 3년) ▶김은애(영중중 3년) ▶송태식(대경중 1년) ▶김호진(동남중 1년) ▶함지훈(포천중 1년) ▶이혜원(대경중 3년) ▶김경락(대경중 3년) ▶윤정렬(갈월중 3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선단동 이웃사랑 김장담그기

## 여성결혼이민자 초청해 함께 김장체험

포천시 선단동주민센터(동장 이수환)는 2007 이웃사랑 김장담그기 및 여성결혼이민자 초청 김장체험행사를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실시했다.

선단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섭)가 주관하고 봉사단체인 선단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규전)와 선단사람적십자봉사회(회장 김순자), 포천?선단여성농업인회(회장 장영옥) 등 3개 단체의 자원봉사자와 동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선단동에 소재한 지역내 상공인 등이 불우이웃을 위해 김장양념 및 재료로 약 100여만원의 협찬했다. 또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자치동 노인회(회장 이일현)에서 자체 재배한 무 200여개를 지원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겨울을 나누었다.

또한, 이날 참여한 봉사자들은



선단동주민센터에서는 함께하는 선단, 참여하는 선단을 구현해 나가고자 2007 이웃사랑 김장담그기 및 여성결혼이민자 초청 김장체험행사를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가졌다.

김장김치를 담가 각 마을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70여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연말연시를 맞아 "함께 하는 사회-더불어 사는 복지선단"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이날 관내의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초청하여 함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 고유의 김장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주인의 일원으로 여망심과 안정감을 부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김장김치 1통씩을 제공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시 수강료를 전액 무료로 감면해 주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선단동에서는 연말연시 동절기를 맞아 '365 릴레이 이웃사랑운동'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체가 적극 동참하여 연탄 및 유류비 지원 등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 웰빙 부사의(不思想)

##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37

자유(自由)란 '맘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등(平等)은 '같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국가(民主國家)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여기는 가치관(價値觀) 가운데 하나다. 자유는 소중한 것이다. 평등도 소중한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은 이처럼 소중한 것이고 공존(共存)하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속엔 맘대로 한다는 뜻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자유라는 말속엔 평등을 부정한다는 뜻도 숨어있다. 이같은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자유는 맘대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制約)이 따르지 않고 간섭(干涉)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머물고 맘대로 하는 것이기에 평등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각각이기에 평등이 자리할 수 없

# 자유(自由)란 '맘대로' 하는 것, 평등(平等)은 '같다'는 것

는 것이다. 거기에 오호러 경쟁(競爭)이 자리 잡게 마련이다. 경쟁이 따르게 마련이다. 자유는 경쟁을 통해 자라는 속성(屬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등'이란 말속엔 자유를 억압(壓抑)한다는 뜻이 숨어 있다. 같은 잣대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같은 방향(方向)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자유는 맘대로 하는 것이고 제각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인데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평등은 이처럼 원천적(源泉的)으로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를 구속(拘束)하는 것이다. 자유를 구속하니 경쟁(競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니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같은 잣대로 다스리고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니 그대로 따르거나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경쟁할 필요도 없고 앞서갈 이유도 없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이처럼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것이다. 그러나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摸索)해야 한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생각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다. 발상(發想)을 전환(轉換)할 수밖에 없다. 자유는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가 아무리 맘대로 하는 것이라 해도 남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평등은 등위(等位)가 같다는 말이다. 서열(序列)이 같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값이 같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제각기 다른 속성(屬性)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제각기 다른 능력(能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형제(兄弟)라도 같지 않은 이유이다. 쌍둥이도 가는 길이 다른 이유이다.

평등은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상향(理想郷)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연의 이치(理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섭리(攝理)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등을 생각한다. 평등을 동경(憧憬)하고 평등을 그리워한다. 평등이란 '꿈'을 버릴 수 없기 때문

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지 못해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고통도 괴로움도 잊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분의 삶에 관한 감동을 받았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신 델 아 주부 명예직(지단)부흥부

# 자유기고 가족의 힘

며칠 전 지인의 집에 불이 났다. 누전에 의한 화재로 다 타고 말았다. 만년전 어떻게 위로를 해 줘야 하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가족을 보는 순간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가족 모두가 무사한 게 감사하며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이 몽땅 다 타 버렸는데도 미소가 있었다.

남편의 힘, 아내의 힘, 자식의 힘이 아닌가 했다. 점점 경기가 어려워져 사는 게 힘들어서 사소한 문제와 곤란한 상황

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지 못해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고통도 괴로움도 잊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분의 삶에 관한 감동을 받았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신 델 아 주부 명예직(지단)부흥부

# '市民과 詩가 만날 때' 제2회 가족 시 낭송 경연대회 성료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규)이 주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문인협회에서 후원한 제2회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가 11월24일 환영회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문화원 임·회원 등 200 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시가 만날 때'라는 주제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시낭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 행사로 16팀이 참가했다.

이날 이만규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게 살아야 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좋아하는 시 한편을 읊미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쉬운 일이 아니며 매마르고 삭막한 현실 속에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 앉아 시를 낭송하며 대화의 꽃을 피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 문화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특히 안익수(시인) 제3의문학주간을 특별초청해 축시를 들었으며 환영회 부시장과 이만규

원장, 이희용 예총회장 등의 애송시 낭송시간도 마련했다.

이날 낭송 결과 신복면에 거주하는 차봉자 씨(언니 차명자 씨) 가족이 낭송한 "어머나는 그 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해 포천시시장상과 트로피를 받았다.

금상은 군내면 김동희 씨(남편 이상열)가족이, 은상에는 소

흘음 김병우씨(딸 김이레) 가족, 신복면 김성열 씨(부인 윤영순) 가족, 동상에는 가산면 한소현 양(동생 한승진 군)가족, 소흘음 김재원 양(정동아 양) 가족, 소흘음 김기호 씨(딸 김수정) 가족이 수상했다.

이밖에 9개팀이 화복상, 다복상, 행복상을 받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문화원이 주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문인협회에서 후원한 제2회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가 11월24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됐다.

# 자유기고

## 세 번째 왕방산 산행을 다녀와서

몇 해전 처음으로 오른 왕방산은 경사가 심해 허벅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다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내려와 아쉽게 산행을 끝낸 적이 있다.

두 번째 산행은 선단동 롯데리조트에서 출발하여 왕방산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포기 할 수 없는 코스로 가산초등학교 동창들과 둘째딸 연수와 동행하여, 서로 밀고 잡아주며 힘들게 산에 올라 이야기도 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산 중턱쯤, 연수 따라서 당시 한참 유행이던 꼭지점 댄스를 추며 힘든 산행을 잠시 잊기도 했다.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에 올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동그렇게 둘러앉아 먹었던 도시락은 꿀맛 같았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친구와 딸이 함께 한 듯 깊은 산행으로 같이 간직하고 있다.

일마 전, 가산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왕방산으로 산행을 갔다.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간식을 나누어 받으며 산에 올랐다. 목탁소리와 함께 불교학교 수업중인 왕방산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평발인 내가 오르막 산을 걷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오르다 완만한 곳을 만나면 너무 좋아 이런 곳만 계속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먼저 산에 오른다고 뛰다가 핸드폰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박영주 선생님, 쇼핑백에 비상약품을 챙겨서 가슴에 안고 산에

오르는 백은희 보건선생님,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나에게 캔 맥주를 건네주시던 이순옥 선생님,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 남편의 '조심히 내려오라'는 답장 받아 자랑하는 재롱엄마, 땀으로 머리가 흠뻑 젖으면서도 끝까지 힘들게 오른 다슬이 엄마, 재외 엄마를 끝까지 인솔하며 올라오신 김선숙 교무부장선생님...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찬 박수를 쳐주었다. 정상에서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해가 짧아져 부지런히 하산하였다. 녀석이 떨어질 길이 미끄러워 계걸음으로 내려오며 풀과 나무 냄새, 지나가는 바람, 돌 틈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 이 모두를 가슴에 가득 품었다.

벌써 초겨울이 왔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손을 흔들며 우리들에게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맨 앞

에 출발한 팀과 중간 팀, 마지

막 팀이 출발시점은 결국 르지만 다름 한 곳에 도착해 만나 쉬는 것을 보며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시는 조미정 선생님 말씀이 나에게 마음속깊이 파고 들었다.

한참 내려오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날도 점점 매서워지고 땀속에서는 피르르 땀을 흘렸다. 드디어 석양 노을이 깊어질 수가 보였다. 그 얼마나 반갑고 아름답던지... 나도 모르게 탄성이 절로 나왔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준 세 번째 산행이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다는 것에 대한 포천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앞으로 남편과 함께 등산해야겠다는 작은 계획을 세운다. 소주 한 잔으로 힘들고 지친 몸을 달래며 모두의 밝은 미래를 기원해본다.



이 은 미 주부 명예직(지단)이사



가산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왕방산으로 산행을 갔다.

# 겨울비 내리는 날의 고백

오늘 하루종일 겨울비가 내렸다. 유독 비오는 날 눈오는 날(그리고보니 무엇이든 오는 날을 좋아하는 것 같다)을 좋아하는데 가을이 다 떨어지고 비가 슬슬서 오면서 겨울이 비집고 자리를 잡는다.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어김없이 흘러서 지구 계절을 내앞에다가 가져다놓는다.

겨울비는 좀 처량하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한 것 같다. 갖가지 차를 세우고 앞유리 창에 부딪치는 빗방울을 바라보거나 우리네 인생의 작은 편린을 보는 것 같았다. 어딘가에 늘 부딪치면서도 늘 어딘가 나도 알지 못하는 명자국들을 발견 할 때의 의아함.

우리네 삶은 알게 모르게 명들면서도 아픔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는 늘 밤을 것이라곤 단정

하는 것 같다.

겨울로 접어들니 여기저기에서 출다고 하고 TV화면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자주 비춰 준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따뜻한 구름장에 앉아서 어떤 안도감에 밖의 추위는 나와는 상관없고 무관하다고 애써 외면하는 에고(ego)는 전에 내가 겪은 추위를 보상받겠다는 이런 추운 일을 보다는 알뜰한 사고는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무서울 때가 있다. 고만하고 절대 따뜻하지 않고 냉정한 자신과 마주할 때 애써 외면하는 또 다른 나를 만날 때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나는 늘 울바르고 착하다고 세뇌를 시켜왔기 때문

에 인정하기가 어렵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진심으로 겨냥하려 한 적이 있는지, 남의 이복 때문에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유니세프에 몇 만원 give하곤 맘 속으로는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그들이 어려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단정짓고 마음껏 풍용하지 못한 것 같다. 고백하건대, 때때로 나도 마음이 시리고 아플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 위로 받고싶고 인정받고싶다. 나 자신 마음을 키워서 그들(누가되었건)을 위로하고 안아줘야겠다. 진심으로. 마음이 잔잔함에....



구 애 경 주부 명예직